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경기회복 조짐, 물가 급등으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상승

□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유로지역은 경기회복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물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음.

- 생산부문의 체감경기, 고용·주문 등 실제 생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구매자관리지수(PMI: Purchasing Managers' Index)가 3월(57.6)과 4월(57.8)에 경기확장 기준인 50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
 - 생산부문의 실물지표인 산업생산은 1월과 2월에 전분기대비 각각 0.2%, 0.4% 증가함으로써 회복세가 지속되었고,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건설업도 1~2월 중 증가세로 전환됨.
 - 이와 같은 50 후반대의 PMI는 금년 1/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.8~1.0%를 달성하고 연율로는 4%의 회복세를 시현하는 것을 의미함.
- PMI가 예상을 상회한 것은 유로지역 경제가 긴축재정, 고유가, 유로화 강세, 재정위기 등으로 부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.
-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3월에 전년동기대비 2.7% 상승하여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였고, 근원소비자물가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 2년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함.
 -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~2월 기간 중 1.3%로 변화가 없었으나 3월에는 1.5%로 상승하여 200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함.

□ 유럽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조짐으로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약화되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얻게 됨.

- 유럽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지속으로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있으며, 원자재가격도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.
- 4월 초 0.25%p 인상된 기준금리는 유로화 강세를 가져와 주변부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나 최근과 같은 소비자물가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7월 이전으로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(Wall Street Journal 4/20, Financial Times 4/19)